

이식신수령자에 있어서의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한 고찰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외과학교실¹

김현욱, 장제현, 김범석, 최훈영, 강신욱, 최규현, 한대석, 이호영, 김순일¹, 박기일¹

목적: 우리나라의 말기신부전 환자수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구의 고령화, 서구사회화와 더불어 당뇨병, 고혈압을 포함하는 성인병의 증가와 큰 관련이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신대체 요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신장이식과 관련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. 저자들은 이식신수령자 중 허혈성 심질환의심하에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특징과 영향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본원에서 신이식수술을 시행한 신이식수령자 중 1998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허혈성 심질환 의심하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은 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지표, 관상동맥질환들의 위험인자, 관상동맥조영술의 결과, 치료방법, 이식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

결과:

- 1) 대상환자는 남자가 27명 여자가 9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1.5(SEM:1.52)세 였고 이식수술과 관상동맥조영술 사이의 평균기간은 81.1(SEM:7.35)개월이었다.
- 2) 말기신부전의 원인 질환은 당뇨병이 3명(8%) 사구체 신염이 13명(36%) 원인불명이 20명(55%)이었다.
- 3)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관상동맥 협착을 보인 환자는 25례(69%)였고 이중 1혈관질환이 7명(19%), 2혈관질환이 9명(25%), 3혈관질환이 9명(25%)이었다.
- 4) 정상 관상동맥을 보인 환자군에 비해 관상동맥협착을 보인 환자군에서 나이가 더 많았으며 (45.5 vs 54.2) 체질량지수가 높았고(21.9 vs 22.8) BUN/Cr 수치도 높았다.(28.4/1.6 vs 36.3/2.9) 또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(193.5 vs 199.1) serum urate 수치가 높았고(7.1/7.6) 이완기 혈압도 높았다.(86.3 vs 87.6) 평균유지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의 용량 또한 많았다.(9.0 vs 10.0) 하지만 연령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수 없었다.
- 5) logistic 회귀분석결과 고령은 관상동맥질환의 의미있는 위험인자였다.
- 6) 관상동맥협착을 보인 환자중 20예(80%)에서 경피적 관동맥 풍선 확장술을 시행받았으며 2명(8%)에서 관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시행받았고 3명(12%)에서는 약물요법을 시행하였다.

결론: 이식후 허혈성 심질환 의심하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을 때 관상동맥 협착을 추정하는데 고령은 의미있는 임상지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.